한-중, 모바일게임 '영토확장' 경쟁 후끈



파티게임즈 '무한돌파 삼국지'

한국모바일게임, 중국시장 공략 강화
새 플랫폼 '알리바바'로 진출 가속도

중국은 세계진출 교두보로 한국 관심
한국서 성공하면 해외시장 투자 유리

국경을 초월한 게임의 영토확장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모바일게임 대전이 뜨겁다. 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모바일게임사들은 세계 최대시장 중 하나인 중국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반대로 중국 모바일게임사들의 한국시장 진출도 발 빠르게 전개 중이다. 새 성장 동력이 필요한 한국은 중국을 블루오션으로, 중국은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한국을 정조준하고 있다.

●한국 게임사 중국 진출 속도

한국 게임사들의 중국시장 진출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한정된 이용자풀로 성장 한계에 다다른 한국게임사들은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 공략에 공을 들여왔다. 특히 최근엔 모바일게임의 중국 진출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문제는 중국시장 진출이 녹록치 않다는 점이다. 직접 진출이 어려운데다, 모바일 부분에선 텐센트의 입김이 너무 세 유통채널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

하지만 최근 컴투스 등 한국기업들이 중국시장에서 조금씩 성과를 내면서 다시금 관심을 받고 있다. 더욱이 중국 내 1위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자체 모바일 게임 플랫폼을 내놓으면서 텐센트의 대항마로 떠오르는 등 유통채널 다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국내 모바게임사들은 알리바바의 새 플랫폼을 통해 중국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이러브커피'로 유명한 파티게임즈는 알리바바와 제휴를 맺고 '무한돌파삼국지'를 중국 시장에 선보였고, 네시삼십삼분도 한국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둔 실시간 모바일 대전게임 '활'을 알리바바 플랫폼을 통해 내놓는다.

●중국 게임사 한국게임에 잇단 러브콜

중국 게임사들의 한국시장 공략도 속도를 더하고 있다. 특히 탄탄한 자금력을 갖춘 회사들이 한국시장에 눈독을 들이면서 한국 게임사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중국 게임사들이 한국 시장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글로벌시장 공략의 테스트베드와 교두보로서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눈높이가 높은 한국 유저들을 대상으로 성과를 거두면 다른 해외 시장에서도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투자를 받는데도 유리하다는 것이 중국 게임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여기에 유저 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이 높다는 점도 매력적인 요소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공중망과 라인콩 등 중국 게임사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서비스하면서 한국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엔 홍콩에 본사를 둔 이편컴퍼니가 하반기 기대작 3종을 공개하며 한국 시장 공략 강화를 선언했다.

중국 게임사들이 한국에서 눈독을 들이는 것은 ARPU가 높은 유저뿐이 아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고품질 모바일게임을 수급해 중국에 서비스하기 위한 전략도 있다. 중국 모바일게임의 큰 손 텐센트는 최근 국내 모바일게임사들에게 자사의 사업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텐센트는 앞서 한국 모바일게임 강자인 CJ게임즈에 5300억원을 투자하는 파격을 보이기도 했다. 이 밖에도 텐센트 대항마로 떠오른 알리바바가 4월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는 등 한국 게임 콘텐츠에 대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팬택의 운명' 내일 결정된다

이통3사 출자전환 결정 마지막날
반대 땐 법정관리 수순 밟게될 듯

위기의 팬택이 8일 중대한 고비를 맞는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월 기업재무구조개선(워크아웃)에 돌입한 팬택의 채권단은 최근 이동통신 3사의 1800억원 출자전환 참여를 조건으로 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가결했다. 또 당초 4일까지였던 이통3사의 출자전환 결정 시한도 8일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이통3사는 또 한번 장고에 들어갔다.

만일 이통3사가 출자전환 의사를 내지 않거나 반대하면 채권단의 결의는 무효화되고 워크아웃은 중단된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팬택은 결국 법정관리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이통3사가 출자전환을 결정하면 팬택 채권단의 3000억원을 더한 총 4800억원의 부채가 주식으로 바뀌어 빚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된다. 이통3사는 출자전환을 결정할 경우 향후에도 적지 않은 손실 위험을 떠안아야 할수도 있는 탓에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휴대전화 유통 상인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4일 이통3사가 국내 벤처 신화이자 약자인 팬택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명근 기자

호텔 예약 대행업체 주의보

아고다 등 3곳 계약 취소 시 환급 거절
외국에 위치한 본사 "국내법 대상 아냐"

저렴한 요금으로 전 세계 호텔을 대신 예약해주는 호텔 예약 대행업체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설상가상 이들은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피해 보상마저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는 휴가철을 맞아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 3곳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업체는 아고다(www.agoda.com), 호텔스닷컴(kr.hotels.com), 익스피디아(www.expedia.co.kr) 등 3곳이다. 태국과 미국업체인 이들은 한국에 사무소나 고객센터를 두고 있지 않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신판매업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영업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주된 소재지가 외국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영업을 할 경우 공정위에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분쟁해결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소비자가 홈페이지에 있는 고객센터 번호로 전화를 하면 "본사나 지점이 외국에 있기 때문에 국내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환급을 거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이들 업체로 인해 접수된 소비자피해는 총 107건이다. 소비자가 계약취소를 요청했을 때 예약금 환급을 거절한 경우가 전체 피해사례의 71%(76건)를 차지했다.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민생침해 예방을 위해 해외사업자와 계약 시 신중히 판단하고 결정할 것, 국내 업자의 경우 사업자 신고여부 확인 후 피해구제를 요청할 것, 계약해지 요구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예방을 위해 메일이나 통화녹음 등 입증자료를 남길 것을 제시했다.

국내 통신판매 사업자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361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되나?

정부, 8월께 세제개편안 발표 예정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당국 등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파악하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세금을 더 이상 줄여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증세를 못하는 상황에서 경기침체로 세입이 예산을 밑도는 등 적자재정도 축소를 검토하는 이유 중 하나다.

정부가 신용카드에 대해 환급해주는 세금은 연간 1조3000억원 수준이다. 지난해는 1조3765억원의 환급을 통해 세금을 깎아줬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신용카드 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지만 직장인들의 반발에 부담을 느낀 국회의 반대로 입법이 좌절되기도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신용카드 공제혜택을 완전히 없애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위해 여전히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등 세금환급에 대한 직장인들의 상징적 의미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소득공제 축소는 폐지보다 공제율을 줄이는 방식 등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8월경 나올 예정이다. 양형모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트위터 @bong82if

■ 눈가 피부 관리법

여성들의 가장 큰 고민 '눈가 주름'
매주 한 번 '눈팩'으로 예방하세요

매일 쉴 틈 없이 깜박이고 움직이는 눈. 눈가 피부는 얼굴 피부보다 얇고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극을 쉽게 받고 부어오를 수 있다. 또 관리를 잘못하면 쉽게 건조해지고 잔주름이 생긴다. 특히 여성들은 노화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신체 부위이기 때문에 메이크업과 눈가 피부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쓴다. 눈가 피부에는 전용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얼굴에 바르는 로션이나 크림은 적합하지 않은 성분이다. 클렌징을 할 때는 클렌징크림이나 오일로 심하게 비비지 말고 전용 리무버로 부드럽게 닦는 것이 좋다.



눈가 피부는 쉽게 건조해지고 잔주름이 생긴다. 가장 빠르게 노화를 드러내는 부분이기도 하다. 눈가 피부는 전용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분을 보충해 항상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항산화 성분 제품도 눈가 피부관리에 유용한 아이템이다. 사진제공 | 낫츠

아이 전용 제품 마사지하며 사용
꾸준한 수분 보충으로 주름 예방
자외선·전자파…눈가 피부의 적

●눈가 피부 관리를 위한 습관

아이(eye) 전용 제품을 바를 때에도 마사지를 하면서 바른다. 손바닥으로 눈두덩이를 꾹 눌러 따뜻하게 데운 후 눈꺼풀 위, 아래에 제품을 발라 톡톡 두드려준다. 이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두드려줘야 노폐물이 빠져나간다. 눈가 피부는 예민하기 때문에 두드릴 때 너무 강한 힘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눈 밑에 통통한 애교살은 젊을 때는 얼굴을 동안으로 보이게 하는 효과를 주지만 나이가 들면 점점 처지고 볼록해질 수 있다. 눈에 자극을 많이 받으면 피부가 늘어져 피부 사이 공간에 지방이 쌓여 주머니처럼 볼록해지는데, 이것을 아이 백(eye bag)이라고 한다. 아이 백은 자주 마사지해야 붓기를 방지할 수 있다. 양손바닥을 달걀 쥐듯이 동그랗게 해서 눈 아래 뼈에 대고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굴리면서 부종과 혈액을 빼준다. 이때 눈동자를 누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컴퓨터를 할 때에도 40분에 한 번씩 먼 곳을 바라보며 눈을 쉬게 해주고 마사지를 주기적으로 해주면 눈에 혈액과 림프 순환이 촉진돼 다크서클이 생기는 걸 막아준다.

●수분 보충 강화와 항산화 성분으로 눈주름 없애기

눈가도 수분 보충을 강화해 항상 촉촉한 상태를 유지해야 주름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눈팩은 짧은 시간 내에 수분을 보충해주고 피로를 풀어주며 다크서클 및 부종을 신속히 감소해주는 작용을 하므로 매주 한 번씩 꼭 해주는 것이 좋다.

아이크림 선택도 중요하다. 기름기 적고 비타민E와 천연식물재료로 만든 제품을 선택해야 눈 부위 피부에 자극을 안 주고 수분이 유실되는 것을 막아 항상 촉촉한 피부로 유지시켜 준다.

부적절한 화장품 사용이나 자외선 노출, 스트레스, 미세먼지 등은 눈가 피부의 노화를 촉진시킨다. 따라서 항산화 성분 제품으로 눈가 피부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다. 자외선 노출과 컴퓨터 전자파는 눈가 주위 피부에 악영향을 미친다. 매일 자외선차단제나 로션을 이용해 피부에 자외선이나 전자파로부터 보호막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철저한 클렌징도 중요한다. 특히 평소 진한 눈가 화장을 자주 하는 여성은 잠자기 전에 화장을 제대로 지우지 않는다면 눈주름이 생길 수 있다.

김재학 기자 ajapto@donga.com 트위터@ajapto

도움말 | 천연화장품 낫츠(nots.co.kr)



삼성전자는 5일부터 이틀 동안 워터파크 캐리비안 베이에서 세계 최초 광대역 LTE-A 스마트폰 '갤럭시S5 광대역 LTE-A'를 체험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운영했다. 특히 시속 90km의 워터 슬라이드 '야쿠아 루프'와 연계한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들이 광대역 LTE-A의 빠른 속도를 떠올리며 인기 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제공 | 삼성전자

LGU+ '유플릭스 무비' 고객 대상 이벤트



LG유플러스는 국내외 영화, TV 시리즈물 등 주문형비디오(VOD)를 무제한 제공하는 서비스 '유플릭스 무비(UflixMovie·사진)' 고객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유플릭스 무비에 가입한 고객 중 콘텐츠를 많이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매주 300명에게 영화 예매권을 1인당 2매씩 제공한다. 지난 달 출시한 유플릭스 무비는 1만2000편의 VOD를 월7000원에 무제한으로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밀레 '히말라야 토크 콘서트' 개최

아웃도어 브랜드 밀레가 히말라야 14좌 사진전 '이창수·영원한 찰나' 전시 개최를 기념해 '히말라야 베이스캠프 토크 콘서트'를 진행한다. 산악인 엄홍길, 소설가 박범신, 만화가 박재동이 히말라야를 주제로 참여한다. 11·14·24일 3회에 걸쳐 진행된다. 7일까지 밀레 공식 블로그 신청 페이지(milletcafe.blog.me/220046206071)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매 회 25명(1인 2석)을 초청한다. 히말라야 4좌 사진전 '이창수·영원한 찰나'는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8월 11일까지 열린다.